

「朴氏傳」의 構造와 後半部の 淵源 考察

余 世 柱

<目 次>

- | | |
|-----------------------------|----------------------|
| 1. 序 論 | 3. 構造的 完結과 後半部の 機能 |
| 2. 女將軍說話와 朴氏傳의 關係 | 3.1. 構造的 完結과 意味表現 |
| 2.1. 源泉 및 形成에 관한 既存研究의 檢討 | 3.2. 總體的 意味와 後半部の 機能 |
| 2.2. 女將軍說話와 「朴氏傳」 後半部の 關聯樣相 | 4. 結 論 |

1. 序 論

「朴氏傳」은 그 다양한 異本群으로 보아 상당히 두터운 讀者層을 형성하면서 비교적 널리 愛讀되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단편적인 언급들까지 고려해 넣는다면, 源泉과 形成에 관한 문제가 가장 커다란 관심사였고,¹⁾ 異本研究²⁾도 일찌기 이루어졌으며, 박씨의 變身을 중심으로 한 宗教·神話學的 考察³⁾도 여러 차례 거듭되었으니 그 연구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一瞥해 볼 때, 作品的 總體的인 構造分析과 이를 통한 본격적인 意味解釋作業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朴氏傳」을 이 시편의 傳記의 敘事樣式으로 보고 主題를 다룬 논문⁴⁾도 있기는 하나, 作品的 사건단락이나 서술단락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關聯 상호간의

- 1) 이 문제에 대한 연구업적들은 기존연구검토에서 일일이 제시될 것이다.
- 2) 朴允在, 朴氏夫人傳 異本考: 《語文論集 1》, 중앙대학교, 1960.
申東一, 李朝戰爭小說 朴氏傳研究: 《陸士論文集 6》, 육군사관학교, 1968.
- 3) 金美蘭, 朴氏傳과 變身모티프: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張玉姬, 朴氏傳의 神話學的 研究—특히 變身모티프를 中心으로—: 《국어교육연구 2》, 원광대학교 국어교육과, 1980.
李仁淑, 朴氏傳과 巫教思想: 《國際語文 2》, 국제대학 국어국문학과, 1981.
景一男, 朴氏傳의 佛敎的 性格: 《語文研究 14》,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85.
- 4) 玄吉彦, 朴氏夫人傳의 主題에 對한 一考察—傳記의 敘事樣式에서 主題問題—: 《韓國言語文學 20》, 한국언어학회, 1981.

대적 질서를 찾고, 그 짜임을 통한 작품의 총체적 의미파악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朴氏傳」의 總體的 構造를 分析하여 이를 통한 客觀的 意味를 파악해 보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고도 의의있는 과제라 생각한다.

그런데, 「박씨전」은 원래 별개의 작품이었던 醜女朴氏脫甲幸運譚인 〈前半部〉와 丙子胡亂救國英雄譚인 〈後半部〉가 하나로 結合되어 이루어진 소설이라는 의견⁵⁾이 있는데, 이러한 主張이 「박씨전」에 대한 構造分析의 研究를 저해하는 논리일 수는 없다. 前·後半의 結合形態가 어떠한 구조적 논리와 작품 내적 긴밀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의 完結體로서 애독될 수 있었던가 하는 의문은 오히려 本作品에 대한 構造的 形象化의 問題에 연구자의 주목을 끌게 한다.

이 논문은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朴氏傳」의 構造的 形象化와 그 總體的 意味를 考察해 보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前·後半의 結合與否에 대한 問題를 일단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박씨전」의 원천 및 형성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일별해 보는 데서 전·후반의 結合與否에 대한 基本立場을 선명하게 해둠과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피고 本傳의 後半部는 女將軍登場說話의 한 양상임을 밝히는 데까지 이르하고자 하며, 그 다음으로 작품구조를 분석하고 後半部의 意味機能을 살펴보면서 작품구조가 표현하고 있는 총체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論議의 방향이다.

이러한 작업은 作品의 構造分析의 研究가 全無했던 「朴氏傳」 研究에 있어서 일종의 方向轉換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자료로는 金起東編,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二卷》所載 「朴氏傳」을 사용했다.

2. 女將軍登場說話와 「朴氏傳」

2.1. 원천 및 형성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박씨전」 연구에 있어서 원천 및 형성에 관한 문제는 가장 커다란 관심사

5) 이러한 견해는 成賢慶, 女傑小說과 「薛仁貴傳」: 《국어국문학 62, 63 合號》(국어국문학회, 1973)에서 언급된 후 史在東, 朴氏傳의 形成過程: 《藏菴池憲英先生古稀紀念論叢》(대구: 형실출판사, 1980)에서 구체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 되고 있다. 일찌기 金台俊님은 「金文谷夫人羅氏」 설화와 《黃剛雜錄》 淸風記에 실린 「朴進士夫人」의 史崇이 「朴氏傳」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라는 데 주목했으며, 「龐足將軍」과 「夫娘」 설화도 「박씨전」과 유사하다고 하였다.⁶⁾ 周王山, 張德頤, 申基亨님도 같은 견해를 되풀이 했다.⁷⁾ 이러한 女性優位性이 드러나는 설화들의 자료 확충을 꾀하는 노력은 玄吉彥님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鄭起龍夫人」, 「李起龍夫人鄭氏」, 「金汚夫人」 등의 설화들을 더 찾아내어 이러한 諸說話들이 「박씨전」의 원천이 되었다고 했다.⁸⁾

그 후, 申東一님은 「박씨전」이 「黃夫人傳」의 영향으로 생겨났으며 「休廢業傳」과는 자매적인 작품이라 하여⁹⁾ 소설작품에서 그 원천을 찾으려 하기도 했다.

이러한 원천탐색들은 작품 전체의 구조적 차원을 대비하여 이끌어 낸 결론이 아니라, 「박씨전」과 枝葉의인 插話가 一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정된 결과였다. 따라서, 이들 논의들은 「朴氏傳」이 여러 개의 說話의 插話의 綜合이나 선행소설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는 생각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다. 李石來님도 야담적 제모티브가 혼합하여 「박씨전」을 형성하였다고 하여¹⁰⁾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런데, 「朴氏傳」은 前·後半이 “不自然 스텝게 結合된 作品이라는 印象을 받는다”고 한 成賢慶님의 날카로운 지적¹¹⁾이 있는 이후, 本傳의 형성과 원천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전환을 마련했다.

史在東님은 “「朴氏傳」이 前半部의 醜女朴氏說甲幸運譚과 後半部의 丙子胡亂英雄救國譚으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作品”이라고 하면서 前半部만으로 이루어진 異本이 「朴氏傳」의 原型이며, 이는 佛經의 醜女金剛의 故事와 구조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醜女金剛의 故事가 「박씨전」의 근원설화라 했다. 그리고, 本傳의 後半部는 창작되었을지도 모르는 「李時白傳記」가 「임경업전」류의 직접적인 자극을 입고 여장군이 등장하는 소설류의 강력한

6) 金台俊, 《朝鮮小說史》(서울: 學藝社, 1939), p.101 참조.

7) 周王山, 《朝鮮古代小說史》(서울: 正音社, 1950), p.155.

張德頤, 丙子胡亂을 前後한 戰爭小說: 《人文科學 3輯》, 연세대학교, 1959.

申基亨, 《韓國小說發達史》(서울: 彰文社, 1960), pp.347~348.

8) 玄吉彥, 朴氏傳과 民間說話와의 關係,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7.

9) 申東一, 李朝戰爭小說 朴氏傳研究: 《論文集 6》, 육군사관학교, 1968.

10) 李石來, 古代小說에 미친 野談의 影響: 《省谷論叢 3》, 성곡문화재단, 1972.

11) 成賢慶, 앞의 논문.

영향을 받아서 허구화된 것이라 하였다.¹²⁾

史在東님의 이러한 연구는 「朴氏傳」의 근원설화를 탐색함에 있어서 前·後半을 독립시켜 고찰해야 한다는 주장을 묵시적으로나마 내세운 것이었다. 筆者도 이러한 見地에서, 「朴氏傳」의 後半部는 女將軍登場說話의 樣相과 본질적으로 一致함을 論證했다.¹³⁾ 이윤석님도 前·後半의 원천을 독립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박씨전」은 “박씨부인의 脫甲幸運譚과 「임경업전」의 전반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야기”라 했다.¹⁴⁾

「박씨전」의 원천 및 형성연구에 대한 이러한 方向轉換에도 불구하고 박성석님은 「박씨전」이 많은 설화의 교묘한 배열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다고 하여,¹⁵⁾ 앞서의 玄吉彦, 李石來님과 같은 입장으로 논의를 되돌려 놓았다. 李京雨님도 「박씨전」의 전·후반을 분리해서 그 원천을 탐색해야 한다는 데 대한 비판이 없이, 「박씨전」의 全體 骨格이 女傑說話의 그것과 一致한다고 했는데¹⁶⁾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金章東님도 女性優位說話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박씨전」으로 전이 되었다고 하여¹⁷⁾ 박성석님과 이경우님의 논의를 되풀이 했다.

景一男님은, 「박씨전」이 그 자체로서 완벽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本傳의 연원을 前·後半으로 獨立하여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朴氏傳」의 淵源探索은 全體敘事構造를 바탕으로 하여 복합적으로 시도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서 祈願得子, 婚姻, 賤待와 隔離, 脫甲, 神技, 戰亂克服, 和平과 富貴榮華의 서사구조가 佛典說話인 「遮羅國王子說話」와 一致하므로, 이설화와 「醜女金剛」의 故事와의 복합형태에서 「박씨전」의 연원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⁸⁾ 그러나, 「박씨전」의 연원을 前·後半으로 獨立시켜 찾을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은, 本傳의 후대적 이본이 완벽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해서 전·후반이 원래 別個의 作品이 아니라 는 법은 없으므로,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또한 賤待와 隔離, 脫甲을 제외

12) 史在東, 앞의 논문.

13) 拙稿, 女將軍登場의 古小說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本考는 筆者의 이 論文에서 이미 논의된 바를 다소 수정하고 加筆하여 전개하되, 근본적인 論旨는 모두 이 논문에 의거했다.

14) 이윤석, 「박씨전」考: 《여성문제연구 12輯》, 호성여자대학교, 1983.

15) 박성석, 박씨전연구: 《배달말 9집》, 배달말학회, 1984.

16) 李京雨, 說話의 側面에서 본 「朴氏傳」: 《論文集 13》, 청주사대, 1984.

17) 金章東, 朴氏傳論攷: 《한양어문연구 3》, 한양대학교, 한양어문학회, 1985.

18) 景一男, 앞의 논문.

한 나머지 主旨들은 古小說(특히 영웅소설) 一般이 지닌 구조적 특성이 「박씨전」 特有의 요소라 할 수 없으므로, 구조 대비상의 전강부회적인 비약이 야기된다. 「박씨전」에 대한 이런 식의 구조 추출은 「遮羅國王子說話」의 구조와 힘겹게 일치시키려는 선입전이 앞섰기 때문에 결과된 것이겠지만, 어떤 개별작품이 지닌 구조를 이런 식으로 자구만 추상화시킨다면, 相互一致를 논할 수 있는 작품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박씨전」과 「遮羅國王子說話」는 隔離와 脫甲이라는 점에서 部分的 一致만 보여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玄吉彦, 李石來, 방성석, 李京雨, 金章東, 景一男님은 「박씨전」 전·후반의 연원을 독립적으로 탐색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朴氏傳」을 여러 說話들의 複合的 集合體로 파악하고자 했으며, 史在東, 이운석님은 前·後半이 원래 別個의 작품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전·후반의 원천을 각각으로 나누어 찾으려 했다. 그런데, 前者의 立場은 이미 史在東 님에 의해 비판되기도 하였지만,¹⁹⁾ 여성우위를 드러내는 여러 설화들이 「박씨전」과 부분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설화들이 널리 口傳된 결과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들의 綜合的 集合에 의해서 「박씨전」이 형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後者의 立場이 더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며, 「朴氏傳」의 淵源은 前·後半을 독립시켜 탐색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한동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女將軍登場說話와 「朴氏傳」後半部の 關聯様相

「박씨전」의 연원에 관한 탐색은 이 작품의 前·後半이 원래 別個의 作品이었을 것이라는 前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女將軍登場說話의 특징²⁰⁾을 살펴보고 이런 설화들이 本傳의 後半부와 어떻게 관련되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려 한다.

「薯童」, 「溫達」 전승에까지 소급될 수 있는 女性優位의 文學傳統²¹⁾은 두 방향으로 계승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으로는 「崔風憲의 딸」,²²⁾ 「李起

19) 史在東, 앞의 논문 참조.

20) 拙稿 (女將軍登場의 古小說研究)에서 논의한 바를 재론했다.

21)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서울: 一潮閣, 1971), p. 48.

22) 李佑成·林燮澤編, 《李朝漢文短篇集 上》(서울: 일조각, 1981), pp. 303~309

靛夫人鄭氏」,²³⁾「鄭起龍夫人」,²⁴⁾「金千鑑夫人梁氏」,²⁵⁾「郭再祐夫人」²⁶⁾과 같은 女性異人說話로 갑승·계승되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吉女」,²⁷⁾「劍女」,²⁸⁾「鹿足將軍」,²⁹⁾「남이장군」,³⁰⁾「사명당과 세여자」,³¹⁾「夫娘」,³²⁾「異人며느리」,³³⁾「李浣의 妾」³⁴⁾과 같은 女將軍說話로 극복·계승되었을 것이다. 앞의 설화들에 등장하는 여성은 일상적인 평범한 여성과 다른 뛰어난 능력을 가진 異人이라 할 수 있으나 武士·武將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으며, 전쟁준비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內助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여장군 설화의 여성과는 다르다. 반면에 뒤의 설화들에 등장하는 여성은 가정외적인 참여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武勇이 뛰어난 武將이요 智將이다. 女將軍이야기는 女性異人이야기와 서로 넘나들면서 병행하여 전승되기도 하였겠지만, 여성이인이야기를 극복·발전시킨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면, 女將軍이 登場하는 說話들의 樣相을 일일이 고찰해 보자.

「吉女」와 「劍女」는 武士의 女性이 등장하기는 하나 전쟁에 참여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典型的인 女將軍說話라고는 할 수 없다. 길녀는 武勇이 뛰어난 여성이며, 집녀는 남복을 입고 5년이나 갈쓰는 법을 익혔고 다짐내 공증을 날아 왕래하는 능력까지 가졌다고 했으니, 이들은 女將軍이라 할 수도 있으나 싸움터에 나가는 전쟁참여 여성은 아니므로 앞으로 언급될 설화들과는 상당한 이질성을 지닌다.

「鹿足將軍」은 고구려 때의 장수 술지문덕을 도왔다는 여장군이 이야기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南怡將軍」에서는 남이장군(1441~1468)이 제주도 정벌할 때 제주도의 장군은 여장군이며, 그 여장군은 남이도 능히 당

23) 趙喜雄, 《朝鮮後期文獻說話의 研究》(대구: 형설출판사, 1981), pp. 199~200: 靛野談 114.

24) 李佑成·林煥澤, 《위의 책》, pp. 98~102.

25) 張志淵 編, 《逸士遺事》 pp. 216~218.

26) 成普說, 《韓國口碑文學大系》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 464~498.

27) 李佑成·林煥澤, 《위의 책》, pp. 312~318.

28) 李佑成, 林煥澤, 《위의 책》, 中 pp. 20~24.

29) 金台俊, 앞의 책, 같은 곳.

30) 金榮振, 《韓國口碑文學大系》3-1 (한국정신문화원, 1980), p. 401.

31) 趙東一, 《韓國口碑文學大系》7-1 (한국정신문화원, 1980), pp. 578~622.

32) 張志淵, 앞의 책, pp. 209~216.

33) 金榮振, 앞의 책 3-1, pp. 100~103.

34) _____, 앞의 책 3-3, pp. 66~71.

하지 못할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 설화에 등장하는 여장군의 실제적 활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아 그 양상을 살필 수 없다.

여장군으로서의 활약이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설화는 「사명당과 세여자」와 「夫娘」, 「李浣의 妾」에 이르러 나타난다.

「사명당과 세여자」는 매우 긴 설화인데, 여주인공들은 海上四皓라는 비도인에게 갖가지 도술과 병법과 무예를 15년간이나 배우고 일약 여장군이 되었다고 했다. 여장군이 된 세 여주인공은 男服을 입고 각각 李舜臣, 權慄, 郭再祐를 도와 전쟁을 陰助하는데, 남성들은 병법이나 무예에 전혀 능력이 없는 인물이며 여성들이 이들에게 병법이나 무예를 가르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실제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지휘는 여장군이 하여 모든 戰功이 여장군에 의한 것이라 했으나, 결국 남주인공에게 여성으로서의 本體가 타르난다고 이야기되었다.

「夫娘」설화도 훌륭한 여장군설화다. 여주인공 부랑은, “自幼로……총략…與兒童으로 設部伍作戰狀호되 自跨馬爲大將호고 折樹枝爲弓矢鎗刀器械호야 分與諸兒호고 號令이 嚴而紀律이 整호야 日以爲常”하는 인물로 어려서부터 女將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장성한 후, 李适의 亂이 일어나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男服을 입고 종군하여, 지혜로써 安州牧使 鄭忠信을 돕는다고 했다. 정충신이 이괄의 난을 평정한 것은 모두 부랑의 贊劃之力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으며, 난을 평정한 후에 정충신이 부랑의 뛰어난 능력과 공을 생각하여 “願留幕中호야 與其終始호노라”하면서 조정에 천거하려 하니 부랑은 결국 女化爲男함을 밝혔다고 했다.

「李浣의 妾」은, 효종이 李浣(1602~1674)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신하들을 시켜 그가 길가에 들어오던 마구 활을 쏘도록 했는데,妾의 예견력으로 갑옷을 갖춰 입고 갔으므로 위기를 모면 했으며, 임금이 하사한 붓대 속에서 칩의 지혜로 북벌에 필요한 지도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북벌 전쟁에 나간 남편을 위해 칩은 남몰래 갑옷과 준마를 갖추어 뒤따라 갔는데, 남편이 위기에 처하자 적병을 쳐다 보니 적들은 스스로 물러갔고 짐짓 남편과 싸워 사로 잡은 후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켜 보이고 함께 돌아와 평생 국복을 받았다고 했다.

그밖에도 시집가서 잠을 많이 잔다는 이유로 식구들에게 천대받으면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을 豫見하고 전쟁준비를 하였으며,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에 나간 남편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남편을 구출하며, 군사를 다시 모

아주어 남편으로 하여금 적을 물리치게 하였다는 「異人며느리」설화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전형적인 女將軍說話라 할 수 있는 「사명당과 세여자」, 「夫娘」, 「異人며느리」, 「李浣의 妾」에서 공통된 樣相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들 설화에 등장하는 여장군은 戰場에 나가기는 하지만, 직접 무기를 들고 전장을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參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間接的인 參與活動을 한다는 점이다. 「사명당과 세여자」와 「夫娘」에서는 탁월한 지혜와 계략으로 男將들을 도왔을 뿐이고, 「李浣의 妾」에서도 남편과 싸워 남편을 짐짓 사로잡았다고 했지만, 정작 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전투를 하지 않고 한번 쳐다 보니 적들이 모두 물러갔다고 했다. 「異人며느리」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전쟁준비를 하였으며 군사들 모아 남편으로 하여금 적을 쳐부수도록 하는 참모역을 하였을 뿐이다.

전형적 女將軍說話에 나타나는 이러한 樣相은 「朴氏傳」後半部에서 보여지는 박씨의 가정외적 참여 활동의 양상과 同軌에 속하고 女將軍登場小說에 나타나는 그것과는 다른 양상이므로³⁵⁾ 중요한 관심거리가 된다.

朴氏는 사실 전란부만을 두고 볼 때는 異人에 불과하지만, 후반부를 통해 보면 女將軍이라 할 수 있다. 胡亂이 일어나 침략한 誦兵을 막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참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박씨의 본신이라 할 수 있는 계화는 胡將의 목을 베는 武士라 할 수 있으므로, 「朴氏傳」은 女將軍이 登場하는 叙事樣式에 포괄될 수 있다.

그런데, 朴氏의 전쟁 참여 활동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적장과 마주쳐 싸우는 女將軍小說에서의 女將軍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女將軍小說에서는 女將軍이 直接 參與하는 樣相이고 女將軍說話에서는 間接參與樣相이므로 간접참여양상인 「朴氏傳」은 說話的次元의 이야기이다.

이로 볼 때, 「박씨전」 후반부는 女將軍說話의 하나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李時白과 관련된 女將軍說話」가 「朴氏傳」後半部일 수도 있으며, 다른 女將軍說話가 變改되어 李時白과 관련된 「朴氏傳」後半部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박씨전」의 후반부가 여장군설화였을 것이라는 추론은 틀림없을 것 같다.

本傳의 후반부가 “한 사람의 숨씨라고 할 수 없는 傳承的 積層性을 지니

35) 女將軍이 登場하는 서사문학양식의 전반적인 樣相分類는 筆者의 앞의 논문을 참조할 것.

고 있다”³⁶⁾는 분석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여장군설화가 名將인 남성과 架空人物인 여성의 결합인 것처럼, 「박씨전」 후반부도 歷史的 人物인 남성과 虛構的 人物인 여성의 결합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관찰³⁷⁾도 筆者의 추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筆者의 이러한 推論이 타당성을 지닌다면, 本傳의 後半部가 女將軍登場小說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史在東님의 추론은 修正되어야 한다. 여장군설화나 「박씨전」 후반부의 양상은 여장군등장소설의 그것보다 先行하는 樣相이기 때문이다.³⁸⁾ 그리고, 「박씨전」은 “박씨부인의 脫甲幸運譚과 「임경업전」의 전반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한 이윤석님의 주장도³⁹⁾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작품의 후반부에서는 林慶業이 야기가 핵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女將軍 朴氏의 뛰어난 役割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朴氏傳」은, 女將軍說話의 하나였던 「박씨전」 後半部가 어떤 창작자를 만나 前半部에 결부되어 하나의 完結된 作品으로 형성된 小說이다. 그렇다면, 여장군설화 중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후반부의 근원설화가 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문제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후반부의 형성시기라든가, 전·후반의 결합시기 등의 문제도 일단 할애해 두기로 한다.

3. 構造의 完結과 後半部の 機能

3.1. 構造의 完結과 意味表現

「朴氏傳」은 원래 別個作品으로 존재했던 前·後半이 어떤 계기에 의해 결합되어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에게 의해, 앞뒤가 서로 어긋난 작품이라는 비판없이 愛讀될 수 있었던 것은 本作品이 지니고 있는 構造의 完結性 때문일 것이다. 그럼, 이 작품이 어떠한 구조로 형상화 되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事件段落이 보여 주는 구조의 實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36) 史在東, 앞의 논문, p. 371.

37) 李京雨, 앞의 논문, pp. 56~57 참조.

38) 筆者의 앞의 논문, pp. 122~130 참조.

39) 이윤석, 앞의 논문: 같은 곳, p. 219.

여기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은 먼저 人物의 相互關係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그것을 토대로 作品構造의 짜임방식을 살필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짜임방식을 통해 어떠한 意味가 表出되고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작품 속에서의 인물관계는, 결국 한 時代意識 속에서 創出되고 表現된다. 그러므로 인물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社會意識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人物關係를 分析하되, 어떠한 社會的 意味가 작품에 反映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물의 상호관계는 아무렇게나 무질서 하게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짜임방식에 의해 표현된다. 하나의 작품은 의미표현을 위해 어떤 짜임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짜임의 방식을 밝히는 작업은 하나의 組織體인 作品을 여러 개의 單位要素로 나누고 각 단위요소 상호간의 內的 秩序를 찾는 일이다. 그런데, 단위요소에는 계층이 있어서 가장 작은 段落인 것이 있는가 하면, 보다 큰 단락도 있으므로 단락의 크고작음은 융통성있게 정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물관계나 짜임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이 지니고 있는 完結美는 드러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作品의 實相이 다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분석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므로, 분석을 통한 總體的 意味把握이 이루어져야 작품의 實相이 좀더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朴氏傳」의 ‘事件段落’을 제시하던 다음과 같다.⁴⁰⁾

(가) 이덕춘의 아들 李時白과 박씨사의 딸이 結婚했다.

(나) 시백은 박씨가 醜女였으므로 첫날밤부터 박씨를 멸시·냉대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꾸중도 不聞하고 계속 그러했으며 家人들까지도 박씨를 박대했다.

(다) 박씨는 避禍堂을 짓고 獨居하면서, 姻父의 朝服을 하룻저녁 사이에 지어내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많은 칭찬을 들었다.

(라) 임금에 박씨의 고통을 덕춘의 朝服에서 암시받고 덕춘을 나무라니, 덕춘은 귀가하여 박씨를 냉대·멸시하는 아들과 家人들을 꾸중하나, 그 후에도 냉대와 멸시는 如前했다.

(마) 박씨는 비루먹은 말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고 살림을 운택하게 했으며,

40) 活字本 「朴氏傳」(金起東 編, 活字本古典小說全集 2卷,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8)을 작품자료로 이용했다. 주요인물의 행위와 그 행위의 성격이 달라지면 단락이 바뀌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분했다. ‘事件段落’이란 ‘叙述段落’과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순서인 사건의 順次에 대한 토막이다.

신비한 硯滴을 시백에게 구해주어 장원급제하도록 했다.

(배 박씨가 박처사의 도움으로 脫甲變身하여 絶世美人이 되었다.

(새 이시백과 임경업의 偉人됨을 알고, 胡王이 美人計로 이들을 죽이기 위해 刺客을 보내니, 박씨가 이것을 예견하고 자객을 불리쳤다.

(배 박씨는 胡亂을 예측, 임금을 피신하게 했고 胡將 용졸더를 죽이고 용골내도 불리쳤다.

(배 이들 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리다가 죽었다.

「朴氏傳」全體를 통해 볼 때, 本傳의 人物關係는 時白과 朴氏의 對立이 그 중심점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이 ‘뛰어난 여성(上位의 女性)’對 ‘무력한 남성(下位的 男性)’의 對比를 시종 일관성 있게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거듭된 언급이 있었다⁴¹⁾ 其實, 「朴氏傳」은 여성의 우월성을, 남성의 무력함과 대조시켜 ‘뛰어나고 바람직한 朴氏’와 ‘무력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時白’의 대비를 중심점으로 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남성 시백의 無力함은 직접적으로 작품 표면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박씨의 優越性을 強調함으로써 相對的으로 드러나는 無力함이다. 즉, 시백의 무력함은 박씨의 초월적 능력과 견주어 보았을 때 독자에게 느껴지는 무력함이지, 결코 시백의 絶對的인 無力함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 시백은 결코 무력한 인물일 수는 없다. “어려서부터 총명영리하여 문씨지십하고 년광 삼오에 두목지 풍채와 문장은 리두를 압두하고 필법은 왕희지를 본받고 지혜는 제갈공후를 효칙하며 겸하여 초패왕의 용을 가졌스니……이럼으로 명망이 조야에 덩헛”(p.395)던 인물이다. 그의 능력은, 명나라가 가탈국의 침범을 받았을 때 조정에서 병조판서 이시백으로 上使를 삼고 임경업으로 副使를 삼아 보낼 정도로, 인정을 받았으며, 明帝에게 청병장이 되어 주기를 부탁 받고 가탈국에 들어가 백전백승하고 돌아와 “일홈이 텃하에 열치며 위엄이 조선에 빛나”(pp.422~423)게 될 만큼 중국에서까지 인정 받은 인물이었다. 이처럼, 시백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명망을 얻었다.

따라서, 사건단락의 대비에서 드러나는 時白의 無力함은, 社會的인 無力함이 아니라 家庭的인 남편으로서의 無力함이며 절대적인 무력함이 아니라

41) 金美蘭, 朴氏傳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鄭明基, 女豪傑系小說의 形成研究,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박씨의 뛰어난 능력에 비추어진 相對的인 無力함이다.

사건단락 (대)(새)(아)는 모두 박씨의 뛰어난 행위를 서술한 단락들인데, 이러한 단락들을 살펴 보면 시백의 무력함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덕춘과 임금의 시선을 통해서 박씨는 바람직한 인물이고 시백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⁴²⁾

그러면, 이러한 인물관계를 단락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단락 (대)에서부터 살펴 보면, 朴氏는 시아버지가 당장 입고 入朝해야 할 朝服을 하룻밤 새에 지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서 嫗父의 대단한 칭찬을 받는 바람직한 며느리인 데 反하여, 時白은 가정에 무관심하여 아버지를 돕지 못했고 아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외모만으로 평가하여 아내를 냉대하고 멸시한다는 이유 때문에 구중만 듣고 있던 바람직하지 못한 아들이다.

(대)에서도 이러한 대비가 가능하다. 박씨는 친리준마를 알아 보고 신이한 연적을 구해 주어 남편을 科擧에 급제하도록 한 훌륭한 아내인데, 시백은 준마를 알아 보는 능력도 가지지 못했고 아내가 아니었다더라면 과거급제도 할 수 없었을 무력한 남편이다. 그리고, 박씨는 말을 험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집안 살림을 윤택하게 하며⁴³⁾ 과거에 응시하는 남편을 위해 성실껏 내조하는 바람직한 아내인 데 비하여, 시백은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도 없으며 아내의 내조를 선뜻 받아들일 줄도 모르는⁴⁴⁾ 바람직하지 못한 남편이다.

다음으로 단락 (새)에서 살펴 보면, 박씨는 살해하려는 美人刺客을 미리 알고 물리쳤는데, 시백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격도 몰라 보고 아내가 아니었다더라면 죽었을 인물이다.

42) 덕춘은, 아들 시백이 知人之感이 없어 박씨를 멸시하고 있는 데 대하여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임금은 덕춘의 조복에서 박씨의 고난을 암시받고는 덕춘을 나무라며 “며느리가 비록 아름답지 못하나 영웅의 풍채로다 박대치 말라”(p. 406)고 당부한다. 讀者들은 덕춘과 임금의 말에 공감하고 박씨에게 동정하며 아내를 멸시·박대하는 시백에게서 저항감을 느끼게 된다.

43) 박씨는 嫗父에게 “집안이 구차른 아니하오나 오히려 유여튼 못하게 소부의 말삼대로 하옵소서”(p. 40)하며, 말을 살것을 청한다.

44) 박씨가 시백에게 연적을 전해 주려고 계화를 시켜 “옛자을 말삼이 잇사오니 잠간 단어가옵소서 한대 시백이 듯고 정척왕 요망한 박씨 감히 나를 청하냐뇨 하며 우직거날 계획 무뎠이 드러와 부인의 사연을 고하거날 박씨 다시 계화를 명하여 전졸왕 잠간드러오시면 드릴 것이 잇스니 한번 슈고를 잇기니 마르옵소서 하거날 시백이질로왕 요망한 계화를 다사려 요망함을 제어하리라 하고 잡아내어 크게 우기고 삼심도를 중치하야”(pp. 411~412) 보낼 정도로 아내의 내조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단락 (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박씨는 胡賊이 쳐들어 올 것을 미리 알고 그 對備策을 남편에게 일러 주었으며, 호적이 쳐들어 오자 임금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켰는가 하면, 胡將을 물리치고 王大妃를 구출했다. 반면에 시백은 아내가 가르쳐 주는 대비책도 朝廷에 관철시키지 못했으며 적을 물리치는게는 실제적인 활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⁴⁵⁾

이와 같이 「朴氏傳」은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나고 바람직한 박씨’와 ‘무력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시백’의 對立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박씨는 남편에 의해 그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할 인물이고, 이에 비하던 시백은 그 능력면에서 평가받지 못할 인물이다. 그런데, 朴氏와 時白의 實在的인 人物關係는 이와 正反對로 그려져 있다. 훌륭한 아내로 인정받고 평가받아야 할 박씨는 시백에게 괘시와 푸대접을 받게 되고, 시백이 오히려 박씨에게 대접받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박씨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훌륭한 며느리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모자람없이 다했으나, 단지 얼굴이 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에게 인정받기는 커녕 오히려 갖은 냉대와 멸시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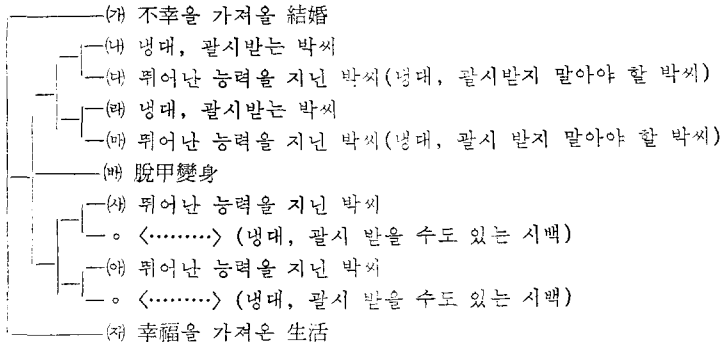
이러한 뒤집힌 인물관계를 통해, 여터모로 냉대와 괘시를 받지 말아야 할 여성이 얼굴 때문에 냉대와 괘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남성들의 女性에 對한 그릇된 認識 때문이며 矛盾됨을 보여 준다. 脫甲變身한 박씨 앞에서 남편 시백은 감히 얼굴도 제대로 쳐다 보지 못하고, 냉랭한 박씨의 태도에 말한 마디 제대로 못한 채 물러나와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自責과 박씨에 대한 恩慕의 情 때문에 음식을 擘廢하고 相思病까지 앓게 되는데,⁴⁶⁾ 시백의 이러한 모습에서 작품의 그러한 의미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분석된 단락에서 이러한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자. (개와 해)는 시

45) 박씨가 가르쳐준 방비책을 주청했으나 간신 金自點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김자점이 “좌의정의 알외는 말삼이 극히 불가하여이다……中略……엇지 요망한 제집의 말을 드러 망녕된 등을 막으라 하오리”라 하며 반대하나 “그 권세를 두려……공이 항거지 못하여 분심을 이기지 못하고……하날을 우러러 탄식”한 하는 대목(pp. 433~434)에서는 시백의 사회적 무력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는 실제적 역사를 완전히 왜곡할 수 없는 허구적 극복의 한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말곡을 평정할 때는 그렇게 많은 활약을 한 인물이 정작 호적이 침입하였을 때는 아무런 방비도 못했다고 되어 있는 서술도 시백의 사회적 무력함이라기보다 역사의 허구화에 있어서의 한계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46) 金美蘭, 朴氏傳과 變身의 모티브: 《국어국문학》78 (국어국문학회, 1978), p. 406.

작과 마지막으로, (개)는 ‘不幸을 가져 올 結婚’을, (재)는 ‘幸福을 가져 온 生活’을 나타내 주는 단락이다.



「朴氏傳」은 이러한 구조의 짜임을 통해 인물관계의 분석에서 드러난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 제시한다.

그러면, (배)를 反轉의 軸으로 하여 위에서처럼 線을 이어 ‘앞쪽’과 ‘뒤쪽’을 나누어 놓고, 이 작품의 意味를 재구성 해보자.

‘앞쪽’에서 보면, 박씨나 시백이나 완벽하지 못한 인물이다. 박씨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며느리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모자람없이 수행했지만 얼굴이 아름답지 못해서 흠이 되고, 시백은 어려서부터 재주는 있으나 知人之感이 없고 가정사에 무기력할 정도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흠이다.

두 인물 모두가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으니, 그 댓가로 냉대와 덜시를 할 값이면 서로 주고 받아야 하든가, 서로를 감싸주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공평한 부부관계가 된다. 그런데, (배)단락에서처럼 박씨는 남편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팔시와 냉대 속에서 고통스러워해야 했으며 시백은 박씨에게 최대한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 ‘앞쪽’에서만 보아도 박씨와 시백의 夫婦關係는 公平하지 못하며 矛盾이라는 論理가 성립된다. 나아가서 ‘뒤쪽’까지 ‘앞쪽’과 함께 고려해 보면, 이들의 공평하지 못한 부부관계는 더욱 잘못되고 모순된 것임이 드러난다. ‘뒤쪽’에서 보면, 박씨는 脫甲變身해서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었고 시백은 그대로 있으니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다. ‘앞쪽’에서는 유독 박씨가 팔시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었는데, (내)처럼 냉대, 팔시를 받았고 시백은 냉대, 팔시했다. 이러한 논리대로 살아간다면, ‘뒤쪽’에서는 온전한 인

간 박씨가 온전하지 못한 시백을 냉대하고 괘시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앞쪽’에서는 둘다 멀리받지말든지 둘다 괘시 받든지 해야 공평한 관계가 되고 뒤쪽에서는 시백이 박씨의 괘시를 받아야 공평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작품의 〈……〉 부분에서, ‘냉대, 괘시받을 수도 있는 시백’이 설정되어야 공평한 부부관계가 되는데, 實相인즉 그곳은 작품에서 비어져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앞쪽’에서는 없어야 할 내용이 있는 셈이고, ‘뒤쪽’에서는 있어야 할 내용이 없는 셈이다. 즉, ‘앞쪽’에서는 시백이 박씨를 냉대, 멀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냉대, 멀리했고, ‘뒤쪽’에서는 박씨가 시백을 냉대, 멀리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둘다 공평함을 깨뜨린 것이다. 공평함을 깨뜨린 것은 박씨나 시백이나 입장이 같다. 그러나, 시백은 아내에게 아량을 베풀지 못하는 쪽으로 평형을 깨뜨렸고, 박씨는 남편에게 아량을 베푸는 쪽으로 평형을 깨뜨렸다.⁴⁷⁾ 그 결과 이 둘의 인간됨 사이에는 그 간격이 ‘앞쪽’에서만 보는 것보다 ‘뒤쪽’까지 고려할 때 더 멀리 멀어지게 되었다. 시백의 남편으로서의 박람직하지 못함은 더 드러난 셈이고, 박씨의 아내로서의 덕은 더 높이 평가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朴氏傳」은 前半部와 後半部라는 자기 별개의 작품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분리시켜 취급할 수 없는 構造的 完結性 내지 統一된 形態美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도 완결된 구조를 통해, 夫婦關係의 矛盾을 보여 주며, 이러한 모순은 오로지 외모만 중시하고 여성의 내적 능력에 대해서는 알아 주지 않는 남성들의 아내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意味는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無意識의인 意味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無意識의 意味가 경우에 따라서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朴氏傳」이 보여 주는 이러한 의미는 朝鮮時代 家父長的 家族制度의 모습이 그대로 反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비록 名望이 두텁고 能力있는 男便이지만 가정적으로는 너무나 무관심하여 무력하기까지 했던 조선시대의 남성이 李時白이며, 醜貌 때문에 남편에게 갖은 멀리와 박대를 받

47) 脫甲變身 후 박씨는 시백에게 한동안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지만, 곧 시백을 용서했다.

지만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모자람 없는 며느리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그 능력에 대한 남편의 인식과 사랑이 주어진다던 가정 외적인 일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朴氏가 조선시대 女性들의 理想일 수 있는 것이다.

3.2. 總體的 意味와 後半部의 機能

「朴氏傳」은 앞에서 제시한 사건단락의 짜임만으로 볼 때 빈틈없는 구조를 가진 작품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한 구성을 가진 작품은 아니다.

本傳은 이덕춘의 사회적 명망과 이시백의 영웅성에 대한 서술로 시작되고 있어서, 序頭部分만을 주목하면 마치 李時白의 傳記小說처럼 느껴질 수 있다. 異本에 따라서는 祈願得子談까지 길게 덧붙여 있어서 더욱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朴氏의 能力에 대한 後半部의 叙述이 전반부의 그것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으면서 林慶業의 武勇과 丙子胡亂의 패배로 인한 복수의식이 강조되어 있어서, 여성의 능력 강조를 통하여 丙子胡亂의 패배에 대한 復讐意識이 이 소설의 주된 내용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전체적 구조 속에 완전히 용해되지 못한 이러한 叙述上の 不均衡은 하나의 촛점으로 독자의 시선을 수렴되지 못하게 하며, 총체적인 의미를 흐리게 하고 혼란시킨다. 그러나, 「박씨전」은 이러한 미비점을 내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건구조로 볼 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짜임새를 갖춘 이야기로서 그 나름의 體系와 論理를 갖추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뛰어난 능력과 婦德을 지닌 여성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여성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남성의,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의해 야기되는 不公平한 夫婦關係의 矛盾과 女性의 能力 및 價値에 對한 새로운 認識의 希求가 본작품의 總體的인 意味라고 한 앞서의 분석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전반부에서만 나타나는 父子葛藤이나 후반부에 나타나는 朴씨의 英雄의 行爲에서만 도출된 결론이 아니다. 전·후반을 통합한 動的 構造의 총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단락들 사이의 관계와 전체구조에 대한 각 단락들의 관계를 統合의이고도 複合의인 全體로서 理解하는 가운데 이끌어 낸 결론이다.

작품의 동적 구조가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意味는 女性受難의 표현이면서 조선시대 家父長的 家族制度가 낳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온갖 탁월한 지

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家庭事를 처리하고 神通力과 豫見力으로 남권을 內助 하지만 얼굴이 추하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멸시와 박대는 여성수난의 포현이며, 시택과 박씨의 불공평한 부부관계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순을 반영한다. 따라서, 朴氏의 超能力이나 變身은, 女性受難이라는 現實의 體驗과 女性 限界意識의 幻想의 克服이며 文學的 逆說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幻想과 逆說의 裏面에는 일상생활의 구원을 회구하는 다음이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특히 여성독자들은, 박씨가 醜女로부터 해방되는 喜悅感 속에서 女性에 대한 남성의 그릇된 認識이 가져온 속박이 무너지는 것 같은 환상적 재미를 만끽했을 것이다. 또한 여성도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여성이라는 한계의식을 극복하는 쾌감을 맛보기도 했을 것이다.

「朴氏傳」을, 傳記의 敘事樣式이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직한 나머지, 李朝支配階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한 전형을 제시한 작품이라 한다면⁴⁸⁾ 本傳의 眞意와는 너무나 相反된다. 傳記의인 形式을 빌어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작품의 본질적인 實相을 이시백의 傳記로 파악하고 주제도 이시백 일가의 번창이나 이시백 일가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작품을 살피게 되면, 「박씨전」뿐만 아니라, 전기적 양식을 빌어 쓴 수많은 고소설 작품의 주제가 모두 한결같다고 하게 되는 도그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朴氏傳」은 胡賊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한 작품이며,⁴⁹⁾ 참정권이 없는 여성들도 봉건적인 가정생활을 벗어나 국난을 타개할 수 있다는 여성의 능력과 지략을 과시한 작품⁵⁰⁾이라는 이러는 後半部만을 두고 볼 때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朴氏傳」 전체의 주제라 할 수는 없다.

물론, 후부반가 部分의 獨自性を 지니고 총체적인 주제와는 관계없이 독자들의 共感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후반부를 통하여 讀者들은 胡賊에 대한 민중적 승리감을 느끼게 되고, 남성들도 물리치지 못한 호적을 두들려

48) 玄吉彥, 朴氏夫人傳의 主題에 대한 一考察: 《알의 책》, p. 175 참조.

49) 張德順(알의 논문)과 朴晟義(韓國古代小說史) ‘申東一(알의 논문) 등 대부분의 선학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했다.

50)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三友出版社, 1981), p. 248.

통쾌한 복수를 감행한 영웅적인 여성상에 무한한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후반부의 사건은 작품의 전반적인 문맥 속에서 읽을 때, 그 사건만이 지닌 독자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後半部는 후반부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것이지만, 전체 작품 속의 일부로 受容되면서 자체의 固有한 意味와 機能을 喪失하고 全體構造 속의 한 部分으로서 총체적 의미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機能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후반부의 (새) 단락은 총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전반부의 (대) 단락과 同一機能을 지닌다. (대)(새)는 모두 박씨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는 단락으로서 같은 意味機能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새) 단락은 가정내적 능력이 가정외적 능력으로 확대될 뿐, 실사 내용이 달라져도 朴氏의 뛰어난 能力을 표현하는 단락이라면 총체적 의미의 표현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後半部는 작품의 전체적 형상화에 어떤 役割을 하는가.

단약, 후반부를 제거해 버린다면, 주된 의미가 다소 약화되거나 축소되어 달라지게 된다. 전반부만을 놓고 보면 父子葛藤, 즉 여성의 美貌보다는 婦德과 內的 能力을 강조하는 덕훈과 婦德과 能力보다는 美貌를 강조하는 시백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어 미모만 보고 여성을 박대하는 남성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의미만으로 축소된다.

반대로, 후반부의 첨가는 공평하지 못한 夫婦關係의 矛盾을 더욱 강도있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한다. 아울러, 여성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그릇된 인식에서 야기되는 불공평하고 모순된 부부관계가 청산되고 남성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성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 따르게 된다면, 가정외적인 일에 있어서도 여성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후반부의 결합으로 생성된 새로운 의미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結 論

이 논문은 「朴氏傳」의 총체적 構造를 分析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가 표현하고 있는 意味를 고찰하자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시도되었다.

그런데, 본작품은 원래 別個의 作品이었던 〈前半部—醜女朴氏脫甲幸連譚〉과 〈後半部—丙子胡亂救國英雄譚〉이 하나로 結合되어 완성된 소설이라는 의

견이 있기 때문에, 본작품의 구조적 연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前·後半의 結合 與否에 대한 문제를 일단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원천 및 형성에 대한 既存研究들을 一瞥해 보면서 前·後半의 結合 與否에 대한 基本立場을 밝혀둠과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피고 본작품의 後半部는 女將軍登場說話의 한 樣相임을 밝히는 데까지 이르고자 했다. 그 다음으로 作品構造의 完結性을 살펴 보고, 前半部에 결합된 後半部의 意味機能을 파악하면서 작품구조가 표현하고 있는 總體的 意味를 전착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朴씨전」의 원천 및 형성에 관한 論議들을 일별해 볼 때, 이 작품은 여러 說話들의 복합적 集合體이므로 前·後半을 독립하여 전·후반 각각의 독립된 淵源을 찾을 수는 없다는 생각과, 前·後半이 원래 別個의 作品이었으므로 그 연원은 전·후반을 독립시켜 탐색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맞서 있었다. 이들 두 생각 중에서 前者보다 後者의 立場이 더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박씨전」의 연원은 전반부의 연원과 후반부의 연원으로 각각 나누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박씨전」 後半部는 女將軍이 登場하는 叙事樣式 중에서 說話의 樣相과 同軌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女將軍登場說話의 하나였던 어떤 설화가 本傳의 後半部로 형성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장군 등장 설화중 어떤 작품이 「박씨전」 후반부의 원천이 되었으며, 후반부의 형성 시기와 전·후반의 결합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할애해 둘 수밖에 없었다.

(3) 「박씨전」은 원래 별개로 존재했던 전·후반이 하나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事件構造로 볼 때, 하나의 짜임새를 갖춘 이야기로서 그 나름의 체계와 논리를 가지고 完結된 構造로 形象化되어 있었다.

(4) 「박씨전」의 총체적인 作品構造가 표현하고 있는 意味는, 여성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여성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남성의,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의해 야기되는 不公平한 夫婦關係의 矛盾과 女性 能力에 대한 새로운 認識의 表現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後半部는 후반부 나름대로의 固有한 意味와 機能을 가지기도 하지만, 전체 작품 속의 一部로 受容되면서 전체 구조 속의 한 부분으로서 총

체적 의미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후반부가 部分의 獨自性을 지니고 본전의 총체적인 주제와는 관계 없이 讀者들의 共感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以上, 本考에서 논의된 바는 작품의 총체적인 構造分析과 이를 통한 意味解釋作業이 거의 全無했던 「朴氏傳」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방향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감히 기대해 본다.